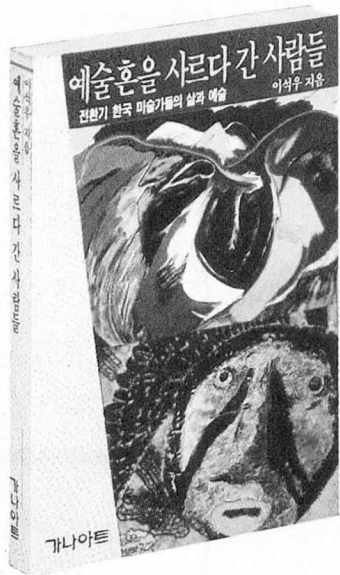


사학자가 그린 전환기 예술가의 초상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펴낸 이석우 교수



예술가의 남다른 생애는 때로 그들의 삶과 사랑이라는 상투적 의미로 평범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곤 한다. 그러나 온전한 '예술가의 초상'은 그들의 삶과 예술을 통합적으로 조명할 때야만 가능해진다.

최근에 출간된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가나아트)은 이러한 의미에서 예술가 개인의 삶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세계의 연관성을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어, 일상적 삶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이석우 교수(49, 경희대 사학과)는 실제 중학교 때부터 그림수업을 시작한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하다. 생존시에는 어떠한 평가를 받았건, 지금은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국내화가 13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책 곳곳에서 배어나는 저자의 안목은 바로 이 창작에의 친숙함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화가 13인의 다양한 삶과 예술

이교수는 월북화가 양수아를 이번 책출판의 遠因으로 꼽는다. 목포중학교 재학시 그곳의 미술교사였던 양수아 밑에서 그림에 눈뜨게 된 이교수는 '인간다움'이 먼저 다가오는 그에게서 예술적 감각 뿐 아니라 '몰입된 삶'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 집안의 반대로 계속 그림공부를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예술적 창작생활은 자신에게 동경의 대상이라는 그는, "교수로서의 여유가 생기니 다시 양수아 선생 생각이 나더라"고 고백한다.

"제가 학위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 나이로 꼭40세가 되던 1980년이었습니다. 인생의 한

고비를 힘들게 넘겼다는 생각은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으로 연결되더군요. 그때부터 다시 화구들을 정리하고 틈틈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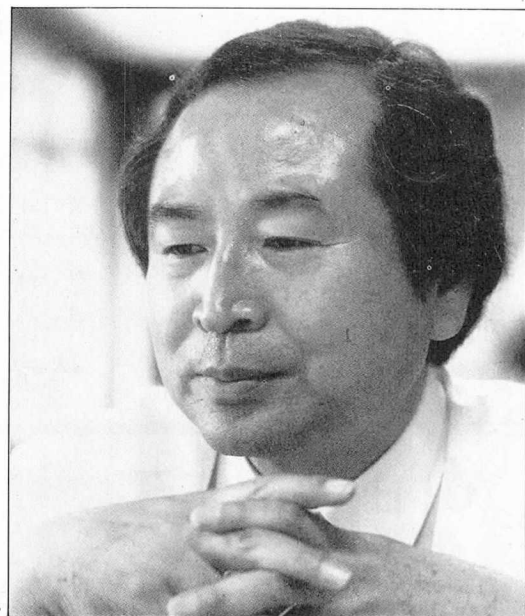
앞으로도 계속될 이 자기모색작업에 있어 하나의 중간 결산물이 되는 이번 저서는 지난 86년, 당시 광주에 생존해 있던 양수아 선생의 부인과의 대담에서부터 비롯된다. 자신의 추억이 뒤엉킨 이 대담을 기초로 양수아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글을 「미술세계」에 연재하기 시작했던 것. 그후 유달리 기복이 많고 강렬한 삶을 소유했던 화가들을 찾아나서는 그의 '외도'가 시작된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화가들은 이제 모두故人이 된 사람들이다. 손상기, 오윤, 최옥경, 박길웅, 하인두, 박항섭, 권진규, 양수아, 박래현, 박수근, 김환기, 박생광, 이응노 등의 면모가 다양한 구성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책에는, 그의 말대로 "여하한 형태로든지 작가와 접촉하려" 한 그의 노력이 담겨있다. 즉 자료수집과정에 있어, 각 화가들과 생존시에 이루어진 인터뷰는 물론, 전시회자료, 유족들의 증언과 유물, 신문·잡지 등 1차적 자료의 확보와 함께 당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평가까지를 망라해야 했던 것이다. 다행히도 평소 "헌책방을 뒤지는" 그의 습관과 수집벽은 이번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교수는 이 자료들을 우선 각 화가들의 구체적 삶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하고 그 다음, 그러한 삶이 작품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혹은 역으로 그들의 작품세계가 삶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화가의 생애와 함께 그들의 작품들에 대한 이교수 자신의 비평을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화가들의 특징을 가장 뚜렷히 부각시켜주고 있는 소재목들을 살펴보면, 양수아의 경우 '역사의 격랑 속에 침몰한 낭만적 예술참여주의자'로, 박생광의 경우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를 예술정신으로 극복한 작은 거인'으로, 이응노의 경우 '분단 이데올로기로 상처입은 예술혼'으로 묘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양한 관심의 소유자이다. 수록된 작가들을 보면, 모더니즘과 리얼리즘 계열의 작가들은 물론 80년대를 풍미했던 민중미술 계열의 작가까지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교수는 이들을 함께 묶는 공통분모로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은 물론, 80년대의 민중미술 계열에 이르기까지 예술가 13인의 초상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예술가 개인의 삶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품세계의 연관성을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 삶에 매몰돼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이석우 교수.

'전환기의 작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방이후 지금까지는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술가를 수용하는 시대라는 측면에서는 더욱 전환기적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예술가 자신의 내적 변화 외에도 시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변화의 강도가 심했지요. 그 요구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의 그림은 시대정신의 조형적, 가시적 반영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는 이교수는, 역사와 미술의 상관성 속에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최후의 항쟁자' 혹은 '피투성이의 영웅'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저항의 대상은 바로 그가 속했던 시대-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기도 한-인 후기산업사회이다. 소외, 퇴폐, 감각주의, 실용주의, 과학주의, 기능주의 등이 이야기하는 문화의 황폐화 현상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술가의 얼굴을 만든다는 것이 이교수의 생각이다.

미술문화의 보편화 의도

물론 "그 얼굴은 다양하면서도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는, 이번 책 출판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내가 어떤 지사적 생각을 갖고 책을 낸 것은 아니지만, 평소 나름대로 느껴왔던 기존 미술평론에 대한 반발심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특권의식은 문화와 그 수용층인 대중을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고 봅니다."

미술문화의 보편화를 통해 전문가들의 권위 의식에 대한 일종의 '해독작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가 일반적인 작가론이나 이론적 틀에 얽매임없이 자유로운 시각으로 작가에 접근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이번 작업은 그의 사관의 일면을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화가→미술→나→역사로 확대되는 역사적 해석을 E.H. 카의 '현재적 관심'에 비유하는 그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얘기는 모두 현재의 관심에서 선별, 구성된다고 말한다.

"고백하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화가들을 통해 나 자신의 현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낸 셈이 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는 '미술'로 나타나지만 자기표현의 수단에 있어 교수라는 지위에 한계를 느끼곤 했기 때문에, 글쓰기를 매개로 예술가의 세계라는 지금과는 다른 세계에 탈출구를 마련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가 말하는 '한계'란 단순히 자유분방한 창작생활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습이나 관습뿐만 아니라 사학자로서 느끼는 이 시대의 역사가 만들어낸 한계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삶의 자세에 있어 아직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 무척 쑥스럽다고 하는 이교수는, 그저 예술가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교수의 예민한 정도로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 이 책은 자기극복의 한 방법이 되고 있는 듯하다.

— 정소연 기자